



주 일 가 정 예 배 순 서 지

목 상 기 도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
 록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 송 가 359장 (내 가 예 수 믿 고 서) ----- 다 같 이

- 1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 2 너가는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 3 너가는길을 모두 가기전에 네 손에든 검을 꽃지 말아라
저 마귀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싸워 이겨라
- 후렴
-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앞에 기다려서 있네

대 표 기 도 ----- 담 당 자
 성 경 봉 독 ----- 시편 125편1-5절 ----- 다 같 이

- 생명수샘 9월 6일(주일) 생명수샘 말씀 -

설 교 ----- 보호하시는 하나님 ----- 인 도 자
 (뒷 면 참 조)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
 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시온 산을 빗대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안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의 안전 보장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만족과 평강을 영원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갈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 산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사계절 내내 눈으로 덮여 있으며 요단강의 근원은 바로 이 산의 얼음과 눈이 녹는 물입니다. 또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 산은 하나님의 택정을 입었지만 당시 적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므로 시온 산을 대적들의 손에서 다시 찾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히 서있는 시온 산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변화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요동치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런 연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세상의 환난이 성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허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고전10:13 말씀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그 연단의 시험이 호락호락 쉬운 시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연단의 시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치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바르게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아멘! 이 말씀은 많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싸시며 보호하시되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릴 품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품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먼저 싸워 이겨야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 이야기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어떤 악의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릴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일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의인으로 악한 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들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고전10:13) 아무리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도 영혼까지 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10:28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너무나 길면 의인이 시험에 빠져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불의한 일에 손을 대지 않으며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숙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자들도 함께 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인 양 주장하는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자는 악인처럼 취급하셔서 보응하십니다.